

# 한국양봉산업 문제의 근본분석

오 만 균  
본협 이사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봉농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소원하오며 무자년 새해는 그동안 못 이룬 꿀 풍년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양봉가들이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노력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와 질병 등 자연재해는 양봉농가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재앙이라 보며 그 피해를 양봉농가들이 4년 동안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만 더 가중되고 있다.

4년간 대표적양봉산물인 아까시아 꿀 생산이 평년작황의 절반이하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경영하며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양봉농가들이 꿀벌의 근면 성실함과 종족 번식을 위해 생명을 바쳐 노력하는 꿀벌의 근본 습성을 닮아 그래도 오늘날 까지 양봉가들이 버티지 않나 생각이 든다.

흉년이 들기 전인 예전에는 꿀벌 겨울나기 보온 물 설치를 끝내고 나면 다가올 봄에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4년 연속 흉년이 들면서부터는 거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으며 언제부터인지 겨울이 도래하면 엄동설한 살아갈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농가들 마음에 고통과 시련이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은 그래도 다른 일과 겸업하는 부업 농보다 양봉만을 경영하는 전업양봉 농가들이 더 몸이 움츠려 진다.

왜 우리 산업이 이렇게 벼랑 끝에 왔는가?

그 원인이 이상기후 변화와 아까시아 수종의 질병이 원인이라면 양봉농가들 스스로 미리예측을 못한 것이 우리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앙이 아닌가!

그러나 세계적 흐름을 보면 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또 있다. 현재 DDA 농업협상의 진전과 다국간 동시 다발적인 FTA가 협상중이거나 타결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양봉산업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이웃 중국과 2008년부터 FTA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양봉산물 생산자 가격을 대략 비교해보자.  
꿀 8배,

로얄제리 20배,

꽃가루 5배

품질도 우리 것 보다 월등히 높은 것들이 우리 생산물의 몇 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조건면적(48배)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품질 및 가격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 농가들이 현재 방식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몇 년 후 중국과 수입 자유화가 된다면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인해 전 양봉농가들이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세계의 양봉산업 흐름을 파악·준비 하고 전문지식을 쌓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금보다도 또 다른 더 큰 불행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양봉 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을 우선 크게 6가지 정도로 문제제기 하겠다.

첫째: 생활수준이 양극화 됨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양봉산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원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터지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문제와 우리가 생산하는 양봉산물 중에도 항생제 함유벌꿀, 저 품질 꿀 둔갑판매 등 2006년과 2007년도에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언론 보도 되고 있고, 우리양봉 업계의 전문가나 양봉농가들은 지금껏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008년도에는 항생제 잔류와 합성화학제 성분 잔류함량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항생제의 경우 식품 속 유해물질이라 하여 타 품종들은 예를 들어 한우, 돼지, 닭 등은 항생제 잔류가 없는 항생제 불검출 선언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우리 양봉 산물은 항생제와 더불어 합성화학제 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 약제들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벌꿀 속에 유해성분 함유로 인해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된다면 누가 우리가 생산한 벌꿀을 먹겠는가?

그래도 항생제는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이해한다지만 유해물질이 함유된 꿀이라면 먹던 꿀도 없앨 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2008년부터 적용되는 항생제 및 유해성분 기준치를 정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니 여러 양봉관련 지도자나 전문가들은 심혈을 기울여 대처해 주길 바란다.

둘째: 우리나라 양봉군수가 10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 되었다. 양봉농가나 전문가들은 증가되는 벌통 수를 대비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밀원부족 사태로 인한 꿀 생산량 감소와 꿀벌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꿀벌의 질병이 점점 만연하게 되었고 양봉가 들은 한층 더 생산성 감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꿀벌의 대표적 질병을 보면 부저병, 석고병, 노제마병, 해충인 진드기 피

해 등 4가지가 대표적 질병에 속한다.(친환경약제 확대 개발의 필요성) 각 질병마다 치료약제들이 대부분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약제는 미비한 실정이고 치료방법에 따른 방제효과와 잔류물 기준량이 정립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연구 자료나 일상적인 자료만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의 실정이다.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실험과 연구 결과물을 갖고 교육하는 강사님은 얼마나 되는지 돌이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양봉분야에 있어 정부차원의 양봉학 관련 전공대학교나 양봉학회에 연구 지원 사업이 부족했다고 본다.

셋째: 꿀벌은 항상 자연 환경에 매우 민감한 사회성 곤충이다. 꿀벌들은 일장의 길이 변화에서 감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지만, 꿀이 있는 곳이라면 목숨을 걸고 꿀을 찾아 날아가 꿀과 꽃가루를 모아온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꿀벌은 각종 작물에 뿌려지는 살충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년 전체 꿀벌의 15~20%가 살충제로부터 목숨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보면 30~40만군이 전멸을 한다고 가정하면, 년300~400억원 정도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에 항의 한번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농약의 독성 연구 및 시험을 통해 자료를 갖고 우리가 소중히 기르고 있는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서 꿀벌들이 여러 작물의 해충방제나 제조작업 등에 사용하는 맹독성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 촉진을 위한 기능성 물질 연구,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현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하겠다.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있듯, 소비가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 또한 4만여 양봉 농가들의 절실한 과제이며, 이 부분도 협회차원의 자조금 조성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양봉산물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아니 10년 후 웰빙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 질 것인가, 건강식품인 양봉산물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 먼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양극화 됨에 따라 소비의 패턴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양봉산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속성 외에 건강 이미지와 미적 측면을 중요시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대소비문화라 생각하면 되겠다.

21세기 시대흐름의 양봉산물 소비 패턴을 보면 VIP소비자, 일반소비자, 타 식품으로써의 역할 등 3가지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 VIP소비층을 겨냥한 품질의 감성화와 기능성을 본다면 품질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명품농산물이란 가격과 기능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중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가) 전통과 장인 정신으로 생산하면서 희소성 즉 특수한 기능(효능)이 있어야 한다.

나) 제품에 양봉산물이 최고의 자연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접목해, 소장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VIP 신분에 걸 맞는 신분 상승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격의 높고 낮음에 크게 구애받지 않도록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한정판매를 통해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국제적 감각과 브랜드화로 귀한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남다른 고품위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양봉산물에 대한 역발상과 재미있는 마케팅으로 명품특성을 접목시켜 세계적으로도 자랑 할 수 있는 명품 양봉 산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일반소비층을 겨냥한 친환경 고품질양봉산물

가) 현재 양봉농가들이 생산하는 양봉산물로써(프리미엄벌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식품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나) 일반 양봉산물들도 한두 개 정도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모든 양봉산물에는 유해 물질이 함유 되지 않도록 친환경 꿀벌 관리를 하기 위해 친환경 약제 개발과 친환경 사양관리를 하는데 더욱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3. 품질이 떨어지는 양봉산물의 일반 식품으로써의 역할

품질이 떨어지는 꿀(꿀벌의 먹이인 설탕성분 함유꿀)은 제약, 제과, 식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꿀벌은 1년 동안 순수한 꿀을 섭취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밀기에는 부득이 사양 공급을 해줘야 꿀벌이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적으로 저 품질 꿀을 생산 하는 일부 농가 들이 문제다.

이런 농가들이 하루 빨리 의식 구조를 바꿔 고품질 안정성 생산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분화, 등급화로 양봉산물에 대한 품질표기화가 양봉산업 전체적 시장 형성이 하루속히 내부적이라도 제도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우리의 양봉산업 모두가 살길이라 본다.

다섯째: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봉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벌써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타 품종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재래종 같은 경우 수세기 전부터 사육되었다.

새로운 종으로 도입된 양봉은 1세기 동안 발전해오면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관련 학과나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꿀벌의 육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없다. 이 분야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는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다.

타 가축의 경우 육종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있지만 꿀벌의 육종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도 국내에는 없을뿐더러, 외국의 우수 종 한 마리라도 가져올 수 없게 법으로 완전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봉산업의 위기가 현실에 봉착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 또한 제일 큰 원인일 것이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지식 경제사회이며 인재 경쟁력이 핵심인 사회라 한다.

기업이든 국가든 농업부분인 양봉 분야든 간에 인재육성이 그 분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봉농가들이 고생하면서도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인식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왜 이 분야를 선택해서 왔는지 자기 비하나 하고 공상을 떠는 농가들이 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하려면 양봉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없으며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이다.

교육은 미래 양봉산업을 위한 양봉인 양성교육과 현재 어려움에 처한 양봉 농가를 위한 의식전환 신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21세기 사회는 평생 교육 또는 평생 학습 시대다. 오늘의 신기술과 정보가 내일도 신기술일 수 없는 시대다.

신기술 정보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정신과 자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기 개발에 필요한 조건이 교육을 통해 갖추어 질 때 우리는 도약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인구 1700만 명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권 농산물 수출국이고, 전체 인구의 1.4%인 농업인구가 이 나라 무역흑자의 44%를 벌어들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 나라는 농업예산의 약 40%를 농업연구개발과 교육에 쓴다고 한다.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치는데 주력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양봉업계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양봉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업체 스스로 밖으로 부터의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뭉치는 힘도 강해야 우리 산업을 지키게 된다.

아울러 양봉업계 모두가 한마음 혼연 일체가 되어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지도자들의 대 내외 활동부족 또한 원인이며, 각 단체의 힘겨루기 등,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인 언급을 했듯이 양봉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 지도자, 학계,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서 신기술 정책을 개발 하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 할 때 우리 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과 협상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이나, 밀원식재 등 현재 실행할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려움이 닥칠 때 대비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농가들 또한 농가들이 해야 할 일 들은 농가 스스로 노력 하고, 협회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단체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양봉산업 전체모두가 힘을 합쳐 양봉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 노력한다면 2008 무자년 새해부터 우리 양봉산업 미래는 변창 할 것이다.

### 양봉관련 알림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양봉업자가 벌꿀을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로얄제리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신고 제외대상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